

여성결혼이민자의 어린 아동의 문제행동 모형 탐색 : 중국, 필리핀,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The Mediational Role of Parenting Self-Efficacy and Behavior on Child Problem Behavior :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최형성(Hyung Sung Choe)¹⁾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 betwee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perceived social support, parenting behavior, and acculturative stress, and young children's problem behavior, focusing on the mediational role of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Mothers were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from China, Philippines, and Vietnam. The participants were 374 mothers of young children and teachers of the children in Busan and Gyeongnam, Korea. Questionnaires were based on Choe and Chung (2001), Shin(1996), Lee (1996), Hong (1995), and Han(1996).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dicated that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were significant mediators of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hild's problem behavior. The results will be useful for parent training programs for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Key Words : 여성결혼이민자(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양육효능감(parenting self-efficacy),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아동(child),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문제행동(problem behavior).

I. 서 론

최근 여성결혼이민자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과의 결혼은 1995년 619건에서 2005년 31,18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청, 2006)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32-B00259).

¹⁾ 신라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ung Sung Choe,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illa University, San 1-1, Gwaebop-dong, Sasang-gu, Busan 617-736, Korea
E-mail : hyungsung@silla.ac.kr

전망이다(주경미, 2006). 이러한 추세와 함께 이들이 겪고 있는 언어소통의 문제, 사회전반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불편,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편견, 저소득, 각종 정보 및 자원으로부터의 소외 등으로 인한 고통(교육인적자원부 외, 2006) 등이 연구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 개인에게 대한 관심에 비해 이들의 양육과 아동발달에 대한 관심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수적 증가와 함께 그 자녀들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자녀란 한국과 자신을 연결시켜주고 남편의 신뢰를 받게 하는 끈 역할(구수연, 2007)을 하는 자원에게 이들의 출산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2006, 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에 재학 중인 이들 자녀의 수는 2006년에서 2007년까지 1년 동안 6,695명에서 11,825명으로 80% 가까운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한다. 이들의 수가 2020년경이 되면 167만 명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여성가족부, 2006).

이들에 대한 관심은 차후 발생 가능한 사회 부적응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상당수의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은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언어·문화·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한 학교 수업에 대한 낮은 이해도, 지나친 소극적 또는 폭력적 행동, 과잉행동장애 및 정서장애 등을 보이고 있으며, 그 수준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교육인적자원부 외, 2006). 또한 이민자의 취약 자녀 중 11.5%가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여성가족부, 2007), 17.6%의 아동이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였고 그 이유로는 ‘엄마가 외국인이라서’가 34.1%나 되었다(보건복지부, 2005). 한국의 단일 문화적 특성은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쉽게 주류 문화에 동화될 수 없게 만드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한, 미국의 조승회사건과 같은, 갈등·분노·폭력 등의 사회적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한다.

아동의 문제행동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동적·정서적 부적응의 결과이다(김선희·김경연, 1998).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이러한 문제들은 청소년기나 성인기의 물질 남용, 청소년 비행, 반사회적 행동, 폭력, 살인, 강간, 약탈, 방화 등의 가능성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Parenting Clinic of University of Washington, 2004). 특히 어린 아동의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은 8세가 될 때까지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공격행동이 만성화되고 중재프로그램의 효과도 떨어진다는 연구들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종을 울려준다(Francis, Shaywitz, Stuebing, Shaywitz, & Fletcher, 1991).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부모이고, 부모는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높은 자존감, 친사회적 기술, 높은 학업 성취 등과 관련되는 반면 부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 행동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Wells & Rankin, 1988).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이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와 그 자녀에게도 나타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선행된 질적 연구들을 고찰하여 보면, 이들은 자녀양육활동에서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위축시키며(전홍주·배소영·곽금주, 2008), 시집식구들에 의해 양육의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향(구수연, 2007)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해 타인에게 자녀 양육을 일임하는 경향(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 2006)도 있어 출산은 하되 주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그 자녀들의 경우도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는 자신의 어머니를 무시하거나(김민정 외, 2006), 가족 간 의사소통에서 소외시키거나, 그 양육지도

에 따르려하지 않거나(홍달아기 · 채옥희, 2006),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형제나 친지에서 도움을 구할지언정 여성결혼이민자인 어머니에게는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향(전홍주 · 배소영 · 광금주, 2008)이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이 아동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궁금증을 낳게 한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에 관한 제 변인들이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문제행동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되며, 대체로 부모의 온정적이며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낮은 문제행동과, 통제적이거나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높은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Coopersmith, 1967; Mondell & Tyler, 1981; Rogenberg, 1965; Wells & Rankin, 1988).

부모의 양육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 중 하나인 양육효능감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예 : 온정적, 비 처벌적, 민감한 양육행동)과 정적인 관련성을,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예 : 아동 학대, 통제적, 강압적 양육행동)과 부적인 관련성을 갖는 경향이 있다(Coleman & Karraker, 1997; Eccles & Harold, 1996; Gondoli & Silverberg, 1997; Leerkes & Crokenberg, 2002). 또한 양육효능감은 양육과 관련된 제 변인들, 예를 들면 사회적 지원이나 스트레스 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기도 한다(Cutrona & Troutman, 1986; Leerkes & Crokenberg, 2002; Levy-Shiff, Dimitrovsky, Shulman, & Har-Even, 1998; Scheel & Rieckmann,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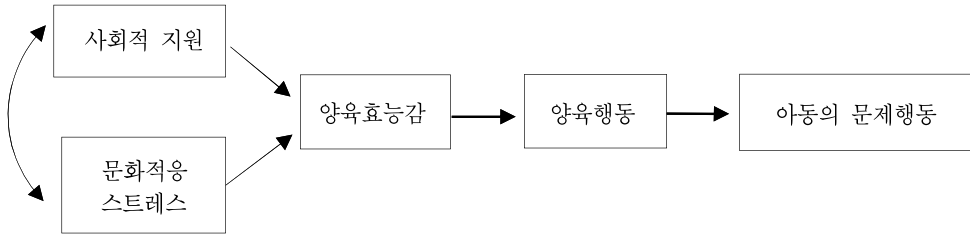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최형성, 2006, 2007) 역시 아동의 자존감 모형을 통해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에 대한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을 입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한국어머니와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자존감을 살펴본 연구이기에 양육의 상황이 특수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경우 어떤 과정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설명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낮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발생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한국어머니들과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의 문제행동이 심각한 수준이며(교육인적자원부 외, 2006)와 문제행동을 보이는 어린 아동의 경우 치료와 개입이 어린연령에 실행되어야 효과적이라는 이론적 고찰(Francis et al., 1991)에 따라 저 연령의 아동 대상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이하의 어린 아동을 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원,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이 어떤 과정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적 지원, 특히 한국어머니들과 차별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 변인들의 모형탐색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바, 본 연구는 일반적인 어머니와 아동 대상 문헌 연구를 통해 <그림 1>과 같은 기본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그림 1>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문제행동 기본모형

<연구문제 1>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 양육 행동,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 지원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 양육 행동,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 지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 아동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원 5세반)의 여성결혼이민자(중국, 필리핀, 베트남 출신) 어머니 187명과 현재 그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유치원 또는 학교) 187명, 총 374명(187세트, 1세트 당 2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1) 여성결혼 이민자의 출신국이 중국, 필리핀, 베트남이어야 하며, 2) 아동의 연령이 초등학교 저학년(3학년 이하)과 나이든 유아(유치원 5세반 기준)이어야 하고, 3) 여성 결혼 이민자가 출산한 아동 중 단 1명의 아동만이 그 대상이며, 4) 아동과 그 어머니(여성결혼이민자)가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5) 해당연령 아동의 어머니(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아동의 교사가 모두 응답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성결혼 이민자의 출신국을 중국, 필리핀, 베트남으로 한정지은 것은 한국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많은 일본을 제외하였을 경우 이 출신국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와 경남 일대의 초등학교 저학년(3학년 이하) 아동과 나이든 유아(유치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 1

(N=187)

배경변인	구분	빈도(%)	배경변인	구분	빈도(%)
출신국	필리핀	98(52.41)	출생순위	첫째	132(70.97)
	베트남	9(4.81)		둘째	49(26.34)
	중국	80(42.78)		셋째	5(2.69)
여성결혼 이민자의 학력	초졸	1(0.55)	여성결혼 이민자 남편의 학력	초졸	19(10.73)
	중졸	24(13.19)		중졸	31(17.51)
	고졸	68(37.36)		고졸	94(53.11)
	전문대 졸업 및 대학중퇴	30(16.48)		전문대 졸업 및 대학중퇴	16(9.04)
	대졸	47(25.82)		대졸	13(7.34)
	대학원졸	12(6.59)		대학원졸	4(2.26)

*배경변인별 무응답 제외 후 빈도수(백분율) 산출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 2 (N=187)

아동의 연령	7.16세(1.66)	범 위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36.31세(4.67)	
남편의 연령	44.49세(4.64)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 기간	9년2개월(28.41)	
		5세~10세
		28세~51세
		29세~57세
		5개월~18년

의 여성의 수가 1위,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창원여성의 전화, 2007) 그 수가 많으며, 이들의 모국어로 번역된 어머니용 설문지를 사용하고 자 하였고 때문이다. 또한 아동의 연령을 초등학교 저학년과 나이는 유아로 선택한 것은 저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 문제행동 치료 및 개입의 효과가 높으며(Francis et al., 1991), 너무 어린 유아는 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전적으로 양육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문제 행동에 대한 객관적 응답을 해 줄 교사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1>과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필리핀과 중국 출신이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여성결혼이민자의 평균 연령은 36.31세, 아동의 평균연령은 7.16세,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44.1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학력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력이 전체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형성과 정옥분(2001)이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37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

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 능력’ 등 5개 하위 요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는 37점에서 18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양육효능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96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홍계옥(1995)이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26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합리적 지도’, ‘한계설정’, ‘애정성’, ‘반응성’ 등 4개 하위요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는 26점에서 130점까지이지만, 점수는 각 요인별로 산출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양육행동의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각 요인별 양육행동의 신뢰도는 .85, .62, .84, .81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숙재(1997)가 제작한 사회적 지원 척도를 사용하였다. 25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남편의 협력’, ‘주위의 도움’ 등 2개의 요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는 25점에서 1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사회적 지원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어머니가 지각하는 문화 적응 스트레스

어머니가 지각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Sandhu와 Asrabad(1994)의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한 이승용(199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6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미움’, ‘변화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문화적 충격’, ‘죄책감’, ‘기타’ 등 7개 요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는 36점에서 18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에 따른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97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아동의 문제행동

교사가 지각하는 아동의 문제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Achenbach(1991)의 Child Behavior Checklist를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타당화 작업을 한 한미현(199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잉행동, 불안 행동, 위축행동, 공격 행동, 미성숙 행동 등 5개 영역,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는 40점에서 12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의 정도가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여성결혼 이민자의 응답을 위하여 어머니용 설문지를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교사에게는 한국어 질문지

를 사용하였다. 간혹 중국 어머니들 중 한국어 질문지를 요청하는 경우 중국어와 한국어 질문지를 모두 주어 읽기 편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용 설문지 번역 작업에는 한국어가 능숙한 중국 유학생 2명, 베트남 유학생 3명, 필리핀 유학생 2명과 영어에 능숙한 한국 학자 1명이 참여하였다. 먼저 중국 유학생 1명, 한국 학자 1명, 베트남 유학생 1명이 한국어 설문지를 각국어로 번역하였으며, 번역된 설문지를 중국 유학생 1명, 필리핀 유학생 2명, 베트남 유학생 2명이 역번역하였다. 원 한국어 문항과 역번역 문항을 대조한 후 동일 문항이 아닐 경우 번역자들이 모여 문항에 대해 의논한 후 최종 문항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문조사를 실시해야하므로 2007년 12월, 2008년 2월, 2008년 7월 등 연속적이지 않은 약 3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인 중국, 필리핀,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에 대한 설문조사는 부산과 경남일대 교육청 다문화담당 장학사와 해당지역의 유치원과 학교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대상 아동의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다문화 담당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구한 후 담임 교사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용 설문지는 담임교사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허락을 구한 후 아동을 통해 전달되고 회수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설문지 응답을 거부하면 교사 역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담임교사는 조사대상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여성결혼이민자는 양육 효능감과, 사회적 지원,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육행동에 대해 응답하였다. 설문지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교사의 설문지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담임교사와의 전화 통화 후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에 응해주는 대상자들에게 소정의 선물(3단 우산)이 제공되었다.

설문지는 배부된 202세트(404부, 2부 1세트) 모두 회수되었으며, 응답의 성실함이 보이지 않는 15세트를 제외한 187세트(374부)를 최종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프로그램과 AMOS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을 비교하기 위하여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을 위하여 상관 분석(Pearson의 적률상관 계수), 연구문제 2를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분석

1.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사회적 지원, 문화적응 스트레스,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각 변

<표 3>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N=187)

변인	평균	표준편차
양육효능감	4.03	.54
사회적 지원	3.74	.58
문화적응 스트레스	2.64	.78
아동의 문제행동	1.25	.24
합리적 지도	4.10	.50
한계설정	3.98	.52
애정성	3.77	.57
반응성	4.16	.55

인들의 특성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단 양육행동은 차원론적 특성이 강하므로 합산하기보다는 요인 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변인들의 이러한 특성들을 기초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사회적 지원,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성결혼 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은 사회적 지원과 양육행동의 각 요인들과 매우 유의한 정적 상관($r=.72, .68, .63, .64$,

<표 4>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사회적 지원,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상관관계 (N=187)

	1	2	3	4	5	6	7	8
1	1.00							
2	.63***	1.00						
3	-.12 ⁺	-.11	1.00					
4	-.09	-.06	-.00	1.00				
5	.68***	.41***	-.18*	-.12	1.00			
6	.63***	.40***	-.06	-.20**	.72***	1.00		
7	.64***	.44***	.07	-.08	.69***	.63***	1.00	
8	.45***	.30***	-.11	-.12 ⁺	.68***	.64***	.43***	1.00

1.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 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원, 3.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4. 아동의 문제행동 5. 합리적 지도, 6. 한계설정, 7. 애정성, 8. 반응성

⁺ $p<.10$ * $p<.05$ ** $p<.01$ *** $p<.001$

<표 5> 여성결혼이민자 양육행동유형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모형 합치도 지수

	χ^2	df	p	Q	CFI	TLI	RMSEA(LO 90	HI 90)
기본모형								
합리적 지도	3.337	5	.648	.667	1.000	1.016	.000(.000	.082)
한계설정	.545	5	.990	.109	1.000	1.047	.000(.000	.000)
애정성	7.880	5	.163	1.576	.985	.971	.056(.000	.126)
반응성	1.156	5	.949	.231	1.000	1.057	.000(.000	.007)
수정모형								
애정성	.954	4	.917	.238	1.000	1.039	.000(.000	.040)

.45, $p < .001$)을 보였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은 양육행동의 각 요인들과 매우 유의한 정적 상관($r = .41, .40, .44, .30$ $p < .001$)을 보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적응 스트레스는 양육행동 중 합리적인 지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r = -.18, p < .05$)을 보였다. 아동의 문제행동은 양육행동 중 한계 설정과 유의한 부적 상관($r = -.20, p < .01$)을 보였다.

2. 여성결혼이민자 아동의 문제행동 인과관계 모형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사회적 지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양육행동은 차원론적 특성이 강하므로 경로 분석에서도 각 요인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먼저 경로분석의 기본 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분석을 위하여 최대가능법을 사용하였으며, 합치도 지수는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 중 가장 바람직한 적합도 지수라는 견해가 강한 CFI, TLI, RMSEA에 근거하였다(홍세희, 2000). 카이스퀘

어(χ^2)의 값은 표본의 크기와 모형 오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이순목, 1990; 홍세희, 2000)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형의 적합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로 널리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합치도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정도의 파악을 위해 카이스퀘어(χ^2)의 값도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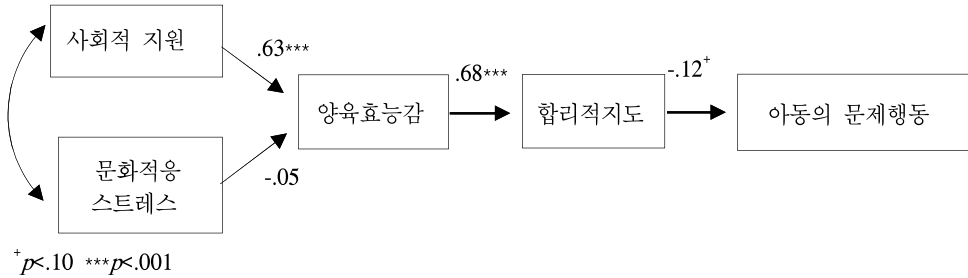
각 기본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합치도 지수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체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단, 애정성 모형의 경우 RMSEA가 그리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었으며 수정지표가 산출되었으므로 <표 6>, 수정지표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애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한 후 다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체로 만족스러운 합치도 지수가 산출되었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각 양육행동 유형에 따른 여성결혼이민자 아동의 문제행동 모형의 경로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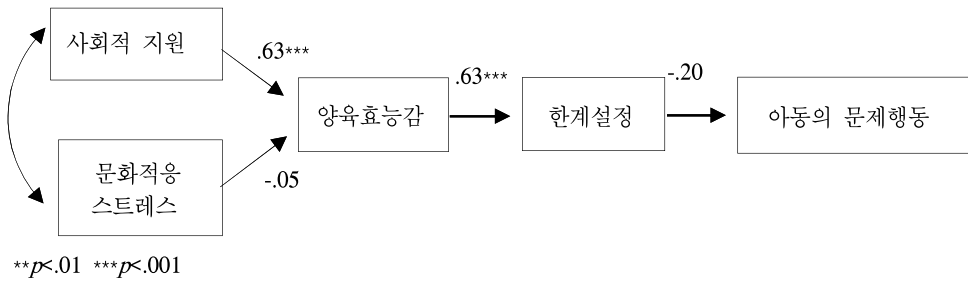
한계설정 모형의 경우, 사회적 지원은 양육효능감과 한계설정을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표 6> 수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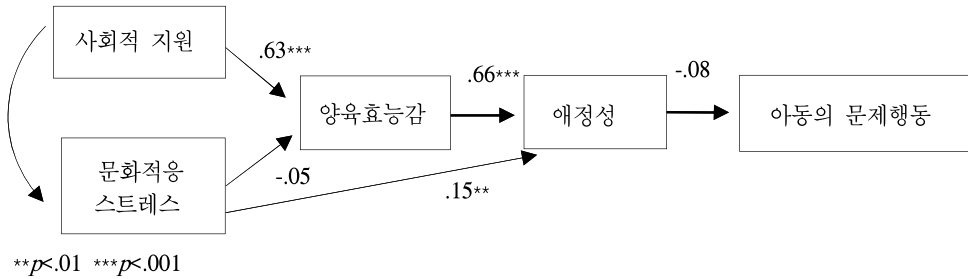
경로	M.I.	Par change
애정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 애정성	6.697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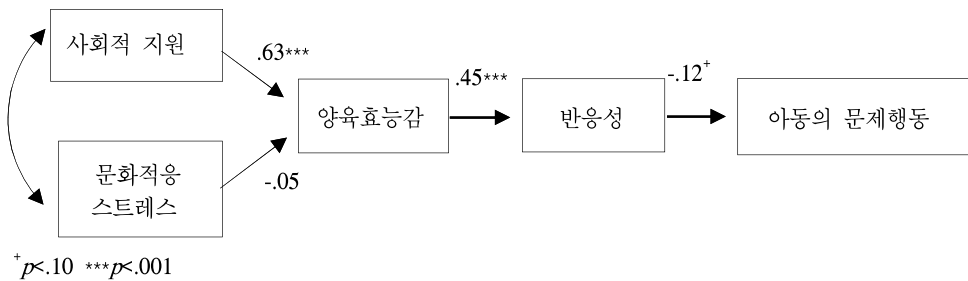
<그림 2> 여성결혼이민자 아동의 문제행동 모형과 그 경로계수 : 합리적 지도



<그림 3> 여성결혼이민자 아동의 문제행동 모형과 그 경로계수 : 한계설정



<그림 4> 여성결혼이민자 아동의 문제행동 모형과 그 경로계수 : 애정성



<그림 5> 여성결혼이민자 아동의 문제행동 모형과 그 경로계수 : 반응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지도와 반응성 그리고 애정성의 모형의 경우 한계설정 모형과 모형은 같지만, 한계설정과 달리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유의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정성의 경우 영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정성의 경우 다른 유형과 달리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모형의 다중상관지수를 살펴 본 결과 합리적 지도의 경우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1%이었으며, 양육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46%이었으며, 양육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설정의 경우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4%, 양육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40%, 양육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성의 경우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1%, 양육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44%, 양육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성의 경우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1%, 양육행동에 대한 변인들의 20%이었으며, 양육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주요 결과들을 논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문제행동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계설정 양육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합리적 지도와 애정성 양육행동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은 사회적 지원, 양육행동의 각 요인과 매우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양육행동의 각 요인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과 매우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합리적 지도는 여성결혼 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미약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이 사회적 지원과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지원이 양육효능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최형성(2006, 2007), Cutrona와 Troutman(1986), Teti와 Gelfand(1991) 등의 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이며, 추후 구체적인 사회적 지원의 종류와 지원 빈도 등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양육효능감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결과라 하겠다.

양육행동의 요인 중 합리적 지도와 애정성이 양육효능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높은 양육효능감이 비차별적, 온정적 양육행동과 관련된다는 선행 연구(Coleman & Karraker, 1997; Gondoli & Silverberg, 1997; Leerkes & Crokenberg, 2002)와 일치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한계설정이나 반응성과 같이 통제적이고 과잉보호적 특성이 강한 요인도 높은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Coleman & Karraker, 1997; Gondoli & Silverberg, 1997; Leerkes & Crokenberg, 2002)와 상반되는 결과이지만 서구에 비해 부모의 통제나 과잉보호를 애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함(Rohner & Pettngill, 1985)한 동양문화의 특성에 기인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요인들과 변인의 관계에 대해 우리

나라의 경우는 어떠한지 살펴본 연구가 드물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심층면접하여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의 부모들보다 아동에게 더 통제적이고 동시에 과잉보호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 “10살보다 어린 아이는 부모에게 말대꾸 못 해”, “한국 사람들은 애를 응석받이로 만들고 있어요”, “(필리핀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까이에 살고 있으면서) 애를 봐 줘, 오냐오냐 하지” 등 10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의 말씀에 복종적이어야 하며 말대꾸조차 하지 못하는 통제적 특성이 강하며, 조부모나 백부, 고모 등 일가친척들이 가까이에 모여 살기에 과잉보호적 양육이 발생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 살면서도 언어 등의 문제로 인해 한국인과 활발하게 교류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자신이 살아왔던 문화적 특성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고, 또 그것을 애정의 일환으로 여기기에 이들에게는 높은 양육효능감이 과잉보호나 통제적 양육행동과 관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양육행동 중 합리적 지도와 애정성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적상관이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Coopersmith, 1967; Mondell & Tyler, 1981; Rogenberg, 1965; Wells & Rankin, 1988)와 같은 맥락의 결과이지만, 그 정도가 미약하였다. 반면 한계설정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부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높은 문제행동을 보고한 선행연구(전명희·오익수·김진희, 1995; Farrington, 1982; Hirschi, 1969; McCord, 1979; Wilson, 1980)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통제적이고 과잉보호적인 특성을 애정으로 생각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가 아동에게 전

달됨으로써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구에 비해 애정적 표현이 약하고 합리적이기 보다는 가부장적 통제가 강한 동양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같은 동양권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와 동일한 요인과 변인에 관한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직접적인 논의를 하기 어렵다.

한편 양육행동의 요인들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상관의 정도가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난 것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자의든 타의든 아동이 언어를 익힐 나이가 되면 아동을 어린이집으로 보내 한국어 교육과 양육을 보육교사에게 일임하거나 시모 등의 타인에게 일임하고, 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아동 지도와 훈육, 학업지도, 식사 준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등 자녀 양육의 일차책임자의 자리를 확고히 하지 못하는 경향 때문에 이들의 양육과 아동의 문제 행동 간의 관계도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 가정과 양육, 아동 발달에 대한 연구 부족 등으로 인해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논의는 관련 후속 연구들이 좀 더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기본 모형으로 설정한 합리적 지도 양육행동과 한계설정 양육행동, 반응성 양육행동 모형 모두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효능감은 사회적 지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향력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도 나타났다. 애정성 양육행동 모형 역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원이 애정성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효능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모형과 달리 애정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애

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원이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에 관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입증한 최형성(2006, 2007), Cutrona와 Troutman(1986), Teti와 Gelfand(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Leerkes와 Crokenberg(2002)와 Machida와 동료(2002)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본 연구에서 측정된 스트레스가 양육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문화적응에 관한 스트레스로써 양육만이 아닌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관한 것을 측정하였기에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또한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인종(Elder, Eccles, Ardel, & Lord, 1995)과 부모의 연령(Shapiro & Mangelsdorf, 1994)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본 연구가 하나의 인종만 선택한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보듯이 그 연령대의 폭이 매우 넓음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차후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종이나 연령에 따라 집단을 분류한 후 그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를 통해 파악될 것으로 사료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동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효능감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선행연구의 견해(Coleman & Karraker, 1997; Eccles & Harold, 1996)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높은 양육효능감이 높은 합리적 지도 양육행동을 유발하고 높은 합리적 지도 양육행동이 아

동의 문제행동을 낮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높은 양육효능감이 바람직한 양육환경을 만드는 행동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이미 예견된 결과이다. 높은 양육효능감이 높은 제한 설정 양육행동과 높은 반응성 양육행동을 유발하고 이 양육행동들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낮춘다는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첫째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문화적 특성에 의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그 설명력의 정도에 관한 것도 첫째 논의에서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그러나 애정성의 경우 양육행동 요인 중 유일하게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일하게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왜 애정성 요인에서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다른 양육행동 요인과 달리 애정성만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는 관련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비교하여 논의하기 어렵다. 또한 한계설정이 다른 양육행동 요인에 비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이유에 대해서도 관련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비교하여 논의하기 어렵다. 좀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후속연구의 하나로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문화와 국가별로 그 과정을 각각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양육행동의 요인에 따라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그 영향력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여성 결혼이민자

의 경우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양육관련 변인의 영향을 매개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그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음도 파악되었다. 한국사회가 이들의 이러한 특수성을 문화적 차이로 인정하고 그대로 수용해야 할지 아니면 보다 한국적인 형태로 이끌어 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긴 시간 동안 논의되고 연구되어야 할 사안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특수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던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의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과 사회적 지원,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육행동에 대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와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교사의 평가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공유된 변량으로 인한 결과 해석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아동의 어머니(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아동의 교사를 세트로 측정하였다. 그 중 어린 연령의 아동이 자신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해 응답하는 척도가 거의 없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행동에 대한 객관적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결론 및 논의 그리고 제한점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과 아동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과 측정 방법을 사용한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결혼이민자 양육행동의 객관적 파악을 위해 관찰법의 병행도 후속 연구에서는 고려해 볼직하다. 둘째, 폭넓은 아동의 연령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초등 교사들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

아동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면 문제의 심각성이 노출되기 시작하고 학교도 더 이상 도움을 도와주기 어렵다는 사실을 토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좀 더 확장된 연령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와 아동의 특수성 파악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 간 비교를 위해 한국, 필리핀, 중국,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양육효능감 신장과 한계설정 강조 등을 포함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와 아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아동 문제행동 치료 및 자존감 신장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양육효능감에 관한 관심은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동발달에 기여한다는 결과들에 근거한다. 바람직한 아동발달을 이끌어 주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자들은 양육효능감 신장을 통해 아동발달에 긍정적인 양육행동 신장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과 아동발달에 관한 과정을 살펴본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 양육과정의 특수성과 여성결혼이민자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활용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 · 외교통상부 · 법무부 · 행정자치부 · 문화관광부 · 농림부 · 정보통신부 · 보건복지부 · 노동부 · 여성가족부 · 중앙인사위원회 · 기획

- 예산처·대통령자문·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계획.
- 구수연(2007). 어린이집 생활을 통해 본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와 가정에 대한 이해. *열린유아교육연구*, 10(12), 95-124.
-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 김선희·김경연(1998).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56-166.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여성가족부(2006). 결혼 이민자-자녀 모두 소중한 한국인. 초대마당, 현장시선, 정책현장. <http://moge.korea.kr>에서 2007년 4월 13일 인출.
- 여성가족부(2007). 말 안 통해 자녀양육이 가장 어려워요. 보도자료. <http://moge.korea.kr>에서 2007년 4월 13일 인출.
- 이승용(1996).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명희·오익수·김진희(1995). 청소년 비행화 과정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3, 91-113.
- 전홍주·배소영·곽금주(2008).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교육지원의 실제와 의미 : 필리핀과 일본 어머니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3), 161-186.
- 주경미(2006). 부산시 여성 결혼이민자 현황 및 정책 방향. 이주여성의 삶과 인권.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심포지움 자료집, 1-22.
- 창원여성의 전화(2007). 멘토링 프로그램 자료집.
- 최형성(2006).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양육행동에 따라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의 제 변인들에 대한 모형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4(11), 79-89.
- 최형성(2007).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 아동의 자존감 모형 탐색. *한국아동학회지*, 28(3), 77-100.
- 최형성·정옥분(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6.
- 통계청(2006). 인구동태.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계옥(1995).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애착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달아기·채옥희(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29-741.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Vermont.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Palo Alto, Ca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Cutrona, C. E., & Troutman, B. R.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 Eccles, J., & Harold, R. (1996). Parent-school involvement during the early adolescent year. *Teachers College Record*, 94, 568-587.
- Elder, G., Eccles, J., Ardel, M., & Lord, S. (1995). Inner-city parents under economic pressure : Perspectives on the strategies of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7, 771-784.
- Francis, D. J., Shaywitz, S. E., Stuebing, K. K., Shaywitz, B. A., & Fletcher, J. M. (1991).

- Analysis of change : modeling individual grow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27-37.
- Farrington, D. P. (1982). *Stepping stones to adults criminal careers*.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and Prosocial Behavior, Voss, Norway, July.
- Gondoli, D. M., & Silverberg, S. B. (1977). Maternal emotional distress and diminished responsiveness :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al perspective ta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3(5), 861-868.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Pacific Grove, CA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eerkes, E. M., & Crokenberg, S. C. (2002). The development of maternal self-efficacy and its impact on maternal behavior. *Infancy*, 3(2), 227-247.
- Levy-Shiff, R., Dimitrovsky, L., Shulman, S., & Har-Even, D. (1998). Cognitive appraisals, coping strategies and support resources as correlates of parenting and infant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4(6), 1417-1427.
- Machida, S., Taylor, A. R., & Kim, J. (2002). The role of maternal belief in predicting home learning activities in head start families. *Family Relations*, 51(2), 176-185.
- McCord, J. (1979). Some child-rearing antecedents of criminal behavior in adult 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 1477-1486.
- Mo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 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3-78.
- Parenting Clinic of University of Washington (2004). Parenting Clinic. [http : //www.son.washington.edu/centers/parenting-clinic/](http://www.son.washington.edu/centers/parenting-clinic/)
- Rog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Books.
- Rohne, R. P., & Pettngil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Sandhu, D. S., & Asrabad, B. R. (1994). Development f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 Scheel, M. J., & Rieckmann T. (1998). An empirically derived description of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for parents of children identified as psychologically disordered.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5-27.
- Shapiro, J. R., & Mangelsdorf, S. C. (199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competence in adolescent mothe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6), 621-641.
- Teti, O.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Wells, L., & Rankin, J. (1988). Direct parental control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6(2), 263-285.
- Wilson, H. (1980). Parenting and poverty.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4, 241-254.

2009년 2월 28일 투고, 2009년 4월 24일 수정
2009년 5월 7일 채택